

近代 리얼리즘文學研究의 再檢討

—20年代 小說研究의 一方法으로—

趙 鎭 基

<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새로운 方法論의 摸索

III. 研究史의 檢討와 反省

I. 問題의 提起

리얼리즘이란 用語는 그 의미의 다양성¹⁾에 의하여 그 범주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을 어떤 고정된 틀로 묶어 두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리얼리즘을 온당하게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르네 웰렉(René Wellek)은 리얼리즘이란 궁극적으로 좋지 못한美學理論²⁾이라고 규정하고 비판적 자세를 보이기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제가 복잡하고 혼란하면 할수록 이를 규명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 리얼리즘이란 용어는 많은 수식어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用例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34가지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ritical realism, durational realism, dynamic realism, external realism, fantastic realism, formal realism, ideal realism, infra-realism, ironic realism, militant realism, native realism, national realism, naturalist realism, objective realism, optimistic realism, pessimistic realism, plastic realism, poetic realism, psychorogical realism, quotidian realism, romantic realism, satiric realism, socialist realism, subjective realism, super-subjective realism, visionary realism (Grant), low realism, high realism, drab realism(Wimsatt & Brooks), raélisme pastoral, réalisme spiritualiste, réalisme du moi profond, réalisme de la plus grande ville(Walter Lacher). Damian Grant, *Realism*, Methuen & Co. Ltd., 1970. pp. 1~2.

2) René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Press, 1973, pp. 255.

그리하여 도날드·팬거(Donald Fanger)는 리얼리즘을 大別하여 古代 이래로 존재하는 不連續의인 ‘양식’으로서의 리얼리즘과 文學史의 한계 내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보다 근대의 ‘歷史的 時期’의 소산으로서 리얼리즘³⁾으로 구분하여 리얼리즘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는 廣義의 리얼리즘, 즉 문학은 본질적으로 自然 혹은 現實을 모방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命題를 비롯하여, 近代小說(novel)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현실중시의 태도가 광의의 리얼리즘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소설(novel)의 성립 자체가 데카르트, 로크의 실증정신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보는 이안·왓트(Ian Watt)의 형태적 리얼리즘(formal realism)⁴⁾과 관련지어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광의의 리얼리즘이란 문제는 너무나 막연하고 포괄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근대의 역사적 시기의 소산으로서 리얼리즘>이란 19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文藝思潮로서 이 시대의 문학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이란 문제는 하나의 문학적 경향(문학사조)으로 제한하여 논의할 때 문제의 복잡성과 혼란은 어느 정도 가설지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19세기의 문예사조로서 리얼리즘 즉 협의로서의 리얼리즘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思潮로서 리얼리즘도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국 문학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음으로써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리얼리즘문학을 논의하는 경우, 거기에는 너무 도식적인 思考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그 결과 비평계의 일각에서는 사조적 연구의 불필요성을 지적하기에 이른다.⁵⁾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지금까지 思潮의 접근이 잘못 이루어진 결과의 소산이지 사조연구 자체가 문학연구에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을 프랑스의 그것에 대입시킴으로써 상이점을 발

3) Donald Fanger, *Dostoevsky & Romantic Realism*, Havard University Press, 1967, p. 3.

4) Ian Watt, *The Rise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81. p. 34.

5) 金治洙는 「文學에 있어서 思潮와 反思潮」라는 글에서 기존 思潮研究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사조적 연구의 불필요성을 ① 현재의 어떤 작품을 과거의 사조 속에 편입시키는 모순 ② 문학에 대한 개념을 옹고시키는 결과를 초래 ③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학 스스로가 제기해야 되는 문학 내부의 질문법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金治洙, 文學社會學을 위하여, 文學과 知性社, p. 130.

전하려는 데 급급했고 그 상이한 양상을 단순히 우리 문학의 불철저성으로 지적하는 데 머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까닭은 리얼리즘을 단순히 낡고 고정된 개념(old fixed realism)⁶⁾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리얼리즘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方法論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研究史의 檢討와 反省

한국의 근대소설의 연구는 따지고 보면 리얼리즘문학에 대한 연구로 일관하고 있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작가론의 성격을 지니든, 작품론의 성격을 지니든 관계없이 리얼리즘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설이 본질적으로 리얼리즘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근대문학 연구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白鐵의 「朝鮮新文學思潮史」(1947)와 趙演鎡의 「韓國現代文學史」(1956)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들 저서의 영향은 그 이후의 문학연구, 특히 문학연구에 있어서 思潮的 접근에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그것은 사조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도식적이며 작가 및 작품의 사조적 유형화에 급급한 뿐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특질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지금까지 리얼리즘 논의의 성과를 대표적인 몇몇 論考⁷⁾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리얼리즘 논의로 최초의 학문적 접근은 白鐵의 「朝鮮新文學思潮史」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것은 리얼리즘만을 문제삼지 않고 한국 근대문학을 思潮를 중심으로 史的 體系化를 시도한 문학사이지만 1920년대 소설의 중심문제를 그는 ‘자연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近代的인 모든 思潮 中에서 우리 新文學史에 가장 큰 足跡을 남긴 것은 自然主義였다. 自然主義는 우리 新文學의 思潮中의 思潮였다〉⁸⁾고 전제하고 자연주의가 20年代 우리의 문단을

6) Hector, P. Agosti, *A Defence Realism, Documents of Modern Literary Realism*, Edited by Goege, J. Beck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494.

7) 리얼리즘을 논문의 중심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성격을 지닌 것은 일단 제외하고 한국의 리얼리즘 자체나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검토될 것임.

8)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 首善社, p. 324.

장악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자연주의의 대표적 작가 및 작품, 그리고 발표무대로 「개벽」과 「朝鮮文壇」을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연주의의 개념과 성격을 프리체의 견해를 근거로 <자연주의문학은 뿌르조아지의 文學>이며 <자연주의문학은 自然科學의 生成 위에 土臺를 둔 文學>⁹⁾이라고 설명하면서 에밀 졸라의 <實驗小說論>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서 자연주의문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自然主義文學의 要旨을 따져 볼 때에 그것은 「近代科學의 文學」 「舊習打破」 「우상파괴」 「진실의 探究」의 문학인 동시에 「아름다운 꿈의 破綻」의 문학이며 「現實暴露의 悲哀」의 문학이 되고 말은 것이다. 그러기에 自然主義文學이라면 그것은 주로 現實의 暗黑面을 그린 作品이 多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말하라는 점은 自然主義文學은 하나의 「現實暴露」와 그 「悲哀」의 文學이라는 것이다. 眞實을 그리는 條件 위에서, 인생의 日常的인 醜惡, 虛偽의 暴露, 性慾生活의 赤裸裸한 描寫가 그들의 得意로 한 文學이었다.¹⁰⁾

이러한 白鐵의 개념규정은 寫實主義와 自然主義를 동일시하고 이 兩者의 한계의 不分明性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西歐의 개념만을 늘어놓고 난 뒤 염상섭의 「個性和藝術」이 한국 자연주의 대표적인 理論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西歐의 자연주의 理論과 廉想涉의 자연주의 이론의 相異點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것이 실제로 자연주의 문학론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없음¹¹⁾으로 그 이후의 작가 및 작품논의는 피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리얼리즘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西歐리얼리즘의 성격에 의존하여 작품을 논의한 결과 작품 속에 내재한 1920년의 시대정신이나 작가의식의 발견에 미흡하고 오직 소재 및 표현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고 하겠다.¹²⁾

9) 白鐵, 위의 책, p. 333.

10) 白鐵, 위의 책, pp. 336~337.

11) 염상섭의 「個性和藝術」은 한국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기에 대한 反論은 최근 상당한 것이며, 특히 權寧珉은 이 글의 방향을 자연주의와 관계없는 문학과 예술에 있어 개성의 문제를 어떻게 확대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의 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權寧珉, 廉想涉의 文學論과 리얼리즘의 認識, 廉想涉研究, 새문社, p. Ⅲ~20 참조.

12) 金治深은 白鐵의 「조선선문학사조사」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西歐에서의 文學思潮가 일단은 어떤 시대에 있어서 존재했던 文學類派 혹은 文學運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의 문예사조가 어떤 시대의 변천과정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1956)다. 거기에서 趙演鉉은 20年代 小説은 自然主義의 寫實主義의 경향¹³⁾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고, 20년대 소설이 자연주의 및 사실주의의 면모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땅의 自然主義 및 寫實主義가 그 最初의 面貌를 小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理由가 있었다. 그것은 近代精神은 散文精神이며 散文精神은 그 정신적인 氣質에 있어 自然主義나 寫實主義와 直通되었고 그 문학적인 表現에 있어 소설이 또한 가장 적합한 文學的인 樣式이었던 까닭에서이다.¹⁴⁾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19세기 문학의 사조로서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멀고, 도날드·팽거의 용어를 빌린다면 ‘불연속적인 樣式’으로서 광의의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추상적인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작가 및 작품의 논의에 들어가고 있으나 白鐵의 견해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60年代에 접어들면서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50年代에 비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鄭漢模는 「리얼리즘의 韓國的 樣相」에서 寫實主義와 自然主義를 구분하지 않고 이 양자를 리얼리즘이란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리얼리즘의 작가들로 金東仁, 廉想涉, 玄鎭健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면서 이들이 리얼리즘문학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오경장, 신소설, 李光洙의 문학과 같은 前段階 문학이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신소설 작가나 李光洙는 <이 땅의 리얼리즘문학에 국면적으로 공헌한 일꾼들>¹⁵⁾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견해는 구체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리얼리즘을 단순히 서구 문학의 이식이란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 문학 자체에서 그 싹을 찾으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에 있어서 정신적 혹은 문학적 반영으로 나타났다는 이론을 얻지 못함으로써 시대의 정신이나 문학의 특성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민족성을 드러내야 되는 문학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金治洙, 앞의 책, p. 122.

13)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第一部), 現代文學社, p. 381.

14) 趙演鉉, 위의 책, p. 381.

15) 鄭漢模, 리얼리즘의 韓國的 樣相, 淑大論文集, 제 2 집, 1962, p. 101.

다음으로 崔性珉의 論考¹⁶⁾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리얼리즘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최초로 시도된 글이라 하겠다. 특히 이 글은 비교문학의 정의 및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리얼리즘 자체보다 비교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리얼리즘을 논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매우 개략적인 것으로 프랑스 자연주의, 日本의 자연주의의 특성을 간략하게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연주의 문학으로 廉想涉, 金東仁, 玄鎮健을 논하고 있으나 리얼리즘의 受容과정이나 그 변이의 양상은 전연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의 자연주의와 차이점을 우리의 자연주의 문학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이러한 논의는 매우 科學的이고 客觀性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겠지만, 외국의 思潮는 수신국의 文學的 전통에 의하여 굴절되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자칫하면 우리의 문학의 후진성 내지 不徹底性이라는 함정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질적 요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同時に 작품의 분석을 통해 실증적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張秉禧(伯逸)는 「韓國的 Realism 文學의 生成過程에 對한 批評」(1966)에서 한국의 리얼리즘은 <서구의 사조를 일본을 거쳐 들여온 수입품>¹⁸⁾으로 규정하고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自然主義의 意義와 한계에서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본질(개념 및 성격)에 대하여 사전적인 설명을 한 후 한국에 있어서 용어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으나 張氏 자신도 그러한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Ⅱ章에서는 <한국적 자연주의문학>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평으로 창조파를 비롯하여 田榮澤文學의 원천탐색,¹⁹⁾ 염상섭문학의 盲點, 현진건의문학의 원천²⁰⁾ 등을 다루고 있으며, Ⅲ章에서 자연주의 문학생성 과정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白鐵, 趙演鉉의 문학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실험소설론과 염상섭의 개성과 예술을 비교·검토

16) 崔性珉, 韓國 現代文學에 미친 프랑스 自然主義文學의 影響, 한국문화연구원은 총 제 5 집, 梨花女大, 1965.

17) 崔性珉은 한국자연주의 문학의 특성으로 ① 프랑스 자연주의 실증주의 정신은 없고 客觀描寫의 방법을 借用 ② 日本私小説의 영향 ③ 現實告發이 아니라 現實에 대한 도피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앞의 논문, p. 82 참조.

18) 張秉禧, 韓國的 Realism 文學의 生成過程에 對한 批評, 文湖 제 4 집 전국대국어국문학회, 1966, p. 318.

19) 이 부분은 金松峴의 「天痴나天才냐」의 源泉探索(現代文學 통권 100호, 1963년 4월호 pp. 429~437)을 註도 없이 거의 그대로 옮겨놓고 있음.

하고 결론으로 공통점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방대한 양에 비하여 새로운 방법론이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既存의 여러 견해를 거의 체계도 없이 엮어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후관계에 있어 상당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리얼리즘문학을 비교문학적 입장에서 체계화한 金澤東의 「自然主義小說論」²¹⁾은 지금까지 리얼리즘 논의의 대표적 업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서론에서 비교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본론에서 리얼리즘과 자연주의의 개념상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양자의 구분은 구분을 위한 구분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일본의 경우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자연주의로 통칭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리얼리즘 및 자연주의로 묶어서 사용하는 전후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문학의 수용양상만을 열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밝혀주지 못하고 있으며 日本 및 러시아문학의 영향은 구체적 사실로서 논증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이 論文이 지니고 있는 우수성은 西歐文學의 수용과정을 증시하려는 실증적 업적은 우리의 근대문학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70年代는 西歐의 리얼리즘에 대한 번역서의 간행²²⁾과 함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활기를 띠게 되며, 이는 70年代 후반에 이르러서는 論爭의 형태로 나타나기에 이른다.²³⁾ 이러한 현상은 70年代에 있어 리얼리즘이 문학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70年代에 들어 具仲書는 「韓國 리얼리즘의 形成」²⁴⁾에서 한국에는 리얼티

20) 이 부분은 역시 金松峴의 「初期小說의 源泉探索」(現代文學 통권 117호, 1964년 9월호)의 현진전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임. pp. 93~95.

21) 金澤東, 自然主義小說論, 韓國近代文學研究, 西江大人文學研究所, 人文研究論文集, 第2輯, 1969. (이 논문은 1972년 단행본 韓國文學의 比較文學의 研究, 一潮閣에서 日本에 있어서 西歐 自然主義의 運命과 근대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別章으로 다루고 있다.

22) 아놀드, 하우저, 문학과 예술의 社會史, 창작과 비평社(1974), 레이먼드, 윌킴스, 리얼리즘과 現代小說, 創作과 批評, 1967년 가을.

23) 1978년 9월 13일 조선일보에 당시 문단의 비평을 社會主義의 寫實主義 경향을 우려한다는 강연抄가 실려지자 任軒永, 具仲書, 廉武雄, 白鐵 등에 의하여 9회에 걸친 論爭이 일어났다.

24) 具仲書, 한국 리얼리즘의 形成, 창작과 비평, 통권 17호, 1970년 여름, pp. 341~352.

즘 문학이 없다고 규정한다.

한국에도 리얼리즘문학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대체로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게된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재현하였다. 더러 사회적 부조리의 문제에 갈등을 느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회의 전모에 대한 충실한 객관적 묘사를 거쳐 창조적 결실로 발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²⁵⁾

여기에서 리얼리즘과 자연주의를 혼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견해대로 리얼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論題부터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밑바닥에는 리얼리즘의 개념을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가 주장하는 <본래의 리얼리즘 기능>²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리얼리즘도 일반적인 문화현상과 같이 각국에 따라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時代的 개념²⁷⁾으로 파악할 때 구증서의 논리는 매우 비약적인 것이며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0年代에 리얼리즘 논의의 대표작인 것 가운데 하나로 金炳傑의 「리얼리즘 文學論」²⁸⁾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목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리얼리즘에 대한 종합적 논의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병철은 리얼리즘을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19세기의 문예사조에 이르기까지 리얼리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리얼리즘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²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20年代 한국 리얼리즘 비판에서는 출라流의 리얼리즘을 비판하고 있으며,³⁰⁾ 그 이유를 단순히 현실재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거에 의하여 김동인, 염상섭의 작

25) 具仲書, 위의 글, pp. 345~346.

26) 具仲書, 위의 글, p. 345.

27) René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40.

28) 金炳傑, 리얼리즘 文學論, 乙酉文化社, 1974.

「리얼리즘 文學論」의 목차를 보면 1. 리얼리즘에 대한 論難. 2. 리얼리즘과 노미얼리즘. 3. 르네상스와 리얼리즘. 4. 로망스론. 5. 근대철학과 리얼리즘. 6. 근대 소설의 리얼리즘. 7. 19세기 리얼리즘의 역사적 배경. 8. 19세기 리얼리즘에의 길. 9. 러시아 리얼리즘문학. 10. 20年代 한국리얼리즘 문학비판의 10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29) 金炳傑, 위의 책, p. 3.

30) 金炳傑, 위의 책, pp. 198~201 참조.

품세계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작품은 표현상의 객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 <사회적 이념에 불타는 인간의 전형>³¹⁾을 창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서론에서 전제한 다양성은 거세되고 비관적 리얼리즘만을 진정한 리얼리즘으로 고집하는 데서 벗어난 상호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柳宗鎬의 「自然主義考」³²⁾를 서구 자연주의 성립근거로 19세기 과학의 성과(진화론의 충격)와 방법론을 문학에 적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결론 부위에서 한국의 자연주의(김동인의 감자)는 서구의 그것과 매우 이질적인 것이므로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연주의(한국의 경우……筆者)는 그저 反理想主義的인 것으로 이해되고 서구의 자연주의가 내포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동경, 현실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객관적인 묘사, 결정론적 인간관 등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중략)……그러나 자연주의와 같은 용어는 보다 적절한 용어로 代置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념 규정과 술어구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注目하고 싶다.³³⁾

이러한 주장은 일면으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엄격히 말하여 西歐의 그것과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우리의 문학이 西歐와 완전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새로운 용어로 대치할 경우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尹弘老의 「韓國近代小說研究」³⁴⁾는 부제로 <20年代 리얼리즘小說의 形成을 중심으로>라고 붙인데서 이 저서의 목적은 리얼리즘의 성격을 밝히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논의의 초점은 리얼리즘이란 측면보다 작가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年代 小說研究의 핵심적인 과제로 리얼리즘의 형성과정과 그 양상을 밝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리얼리즘의 기본개념을 常數로, 민족과 상황에 따른 상이한 리얼리즘을 變數로 하여 상수와 변수의 함수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리얼리즘이 각 민족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어 토착화되고 變容되었는가를 넓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리얼리즘의 수용과정을 검토해야 할 것>³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장으로 끝난 뿐 각국의 리얼리

31) 金炳傑, 위의 책 p.227.

32) 柳宗鎬, 自然主義考,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 2집 1976년.

33) 柳宗鎬, 위의 논문, pp.107~108.

34)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 一潮閣, 1980.

35) 尹弘老, 위의 책 p.38.

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실제 우리의 20年代 작가 및 작품 논의에서는 역사주의적 입장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李康彦의 「韓國近代小說論攷」³⁶⁾ 또한 20年代 리얼리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사조적 입장에서 리얼리즘을 문제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근대문학을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두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자의 계열로 李光洙, 金東仁, 田榮澤, 羅稻香, 최서해를 후자의 계열로 염상섭, 현진건 등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의 유형화의 근거로 제시된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이 너무나 포괄적인 것으로 되어 버림으로써 작품의 구체적인 실상을 놓쳐 버릴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양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작가 및 작품의 독자성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리얼리즘의 경우, 서구의 문학에도 낭만적 요소는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³⁷⁾을 고려하지 않고 낭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리얼리즘 문학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의 리얼리즘 문학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Ⅲ. 새로운 方法論의 模索

지금까지 리얼리즘 논의의 몇 가지 방향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것을 정리하면 첫째, 문학연구에 있어서 思潮에 대한 연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세째로 우리의 리얼리즘의 성립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문제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리얼리즘문학으로서 작품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위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方法論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학연구에 있어서 思潮의 접근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야 할

36) 李康彦, 韓國近代小說論攷, 螢雪出版社, 1983.

37) 梁송은 「자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연주의는 낭만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 결과에 있어서까지도 낭만주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다. Lanson(丁奇洙譯) 佛文學史(下) 乙酉文化社, p. 151. 그리고 리얼리즘이 낭만적 요소는 René Wellele 도 지적한 바 있고, 실제 日本의 경우에는 私小說이란 독특한 세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학연구에서 사조적 접근은 리얼리즘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문학을 사조의 틀에 집어 넣으려는 노력이 성행하여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문학에 있어서 사조란 한 시대의 문학운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문학에 대한 理念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문예사조는 다양한 작가, 작품을 유형화하여 단순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문예사조적 접근에 대한 불신은 사조적 접근을 부정하는 논리마저 낳게 했다.³⁸⁾ 그러나 문제는 思潮를 西歐의 개념대로 도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화란 그것의 외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과 만남으로 굴절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문학연구에 있어 思潮의 접근에 비판적 자세를 보였던 金治洙도 지적하고 있다.

文學史를 정리하거나 한 작가나 작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평가나 文學史家は 서구식 개념을 그대로 한국문학에 적용하거나 西歐式 思潮 속에 한국 작가나 작품을 적용시키는 것은 오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문학사를 정리할 때에는 그 나라 안에서의 필연성, 그 나라 문학 자체에서의 필연성을 발견해서 그것에 의해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진술 속에는 사조적 연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의 굴절현상을 역사적 필연성에 의하여 발견해야 함을 강조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될 때 우리 문학을 맹목적인 서구문학의 이식이나 모방으로 파악하고 서구의 문예사조와의 대비에 의하여 한국문학의 열등성, 不徹底性을 지적하는 일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寫實主義와 自然主義를 구분하는 문제라 하겠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에 의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밝히는 데 노력했다. 특히 金澤東은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어느 만큼 양자의 성격을 밝히는데 기여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작품 논의에 있어서는 양자의 구별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한국의 작품이 이 양자를 구분한 수 없을 만큼 혼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작품상의 차이보다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데서 기

38) 金治洙, 文學에 있어서 思潮와 反思潮, 文學社會學을 위하여 所收, 文學과 知性社, p.128 참조.

39) 金治洙, 韓國小說의 空間, 悅話堂, 1976, p.124.

인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자연주의는 리얼리즘의 요소를 더욱 강조한 것⁴⁰⁾이라고 규정하거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공통신념으로 외적 진실의 模寫의 客觀的, 再現⁴¹⁾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또 동의어로 사용⁴²⁾되고 있으며,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崔性珉은 <프랑스에서 自然主義文學이라던가 寫實主義란 말은 1850年頃부터 19세기 말까지 거의 같은 의미로 通用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注目해야 한다>⁴³⁾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한계를 의식적으로 구분하려는 작업은 많은 혼란을 일으킬 뿐 작품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稿를 달리하여 논의될 것임)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의 성립과정 에 대한 보다 올바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다 하겠다. 그리하여 西歐文學과의 관련양상에 대해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구문학과 관련하여 이질성을 발견하여 이것을 우리 문학의 후진성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문학의 수용이란 문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검토되어야 올바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내적요구와 외적충격이란 관점이라고 하겠다.⁴⁴⁾ 새로운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체 내에서 그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리얼리즘의 경우 1920年代에 우연히 서구의 리얼리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문학의 전통을 부정하고 우리의 문화를 이식의 문화로 파악하려는 식민지 문학관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20年代 리얼리즘문학을 전적으로 自生的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리얼리즘 문학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鄭漢模가 한국 리얼리즘의 전단계를 설정한 것은 매우 훌륭한 것이라 하겠다.⁴⁵⁾

40) W.K. Wimsatt Jr & C. Brooks, *Literary Criticism*, Alfred A. Knopf, New York, 1959, p. 457.

41) Furst, *Skrine Nateralism*, Methuen & Co. Ltd., 1971, p. 8.

42) 스테판 코올(여균동 譯), 리얼리즘의 歷史와 理論, 한밭출판사, 1982. p.127.

43) 崔性珉, 앞의 논문 p. 77.

44) 拙著, 韓國現代小說研究, 學文社, pp. 234~242 참조.

45) 鄭漢模는 한국리얼리즘문학의 前段階로 新小説, 李光洙의 문학을 설정했으나 리얼리즘문학의 전단계는 그 以前의 李朝後期文學에서부터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점은 따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한편 西歐의 리얼리즘의 수용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리얼리즘문학의 외래적 원천으로 프랑스, 러시아의 문학이 고정적 매개자로 日本을 거쳐 20年代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을 확립시켰다고 할 때, 외래문학의 수용과정을 밝히는 동시에 거기에서 무엇이 어떻게 수용되고 굴절되어 나타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金澤東에 의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의 집성에서 벗어나 원천 및 영향의 실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비로소 한국 리얼리즘의 성격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교문학적 접근이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연구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다.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1920年代 리얼리즘의 성격을 규정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구체적 작품을 통해 작품 속에 내재된 정신과 시대와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1920年代 우리의 리얼리즘문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가능해지리라 믿는다.